만화로 보는 '명상 주역 에세이' ㉗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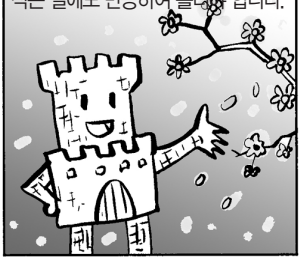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물질이고, 가바는 억제성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적은 글루타메이트 양만으로도 자극이 전달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이 있어야 자극이 전달됩니다.

즉 전자는 억제력이 약한 적극적인 사람이고 후자는 억제력이 강한, 소극적이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바(GABA)라는 둑의 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제 풍지관의 구오는 '나'라는 작은 범위에서 '우리'와 '나라'라는 넓은 범위로 그 관찰영역이 옮겨짐에 따라 자극의 전달기준이 달라져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를 '나'가 아니라 '나라'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 한정될 때는, 둔하게 반응해야할 자극의 정도에도, 하나의 단체를 맡거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범위가 '국가'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는 나라의 일에도 마치 내 몸을 느끼듯이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경전달물질은 국가에 관계되는 어떤 작은 일에도 반응하여 흘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고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어떻게 말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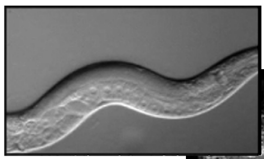
그것이 바로 관민(觀民)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행동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행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傳에 이르기를 "임금이 자신의 정치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보려면 마땅히 백성을 봐야하니, 백성의 풍속이 선하면 정치와 교화가 잘된 것이다(人君 欲觀己之施爲 善否 當觀於民 民俗 善則政化 善也)."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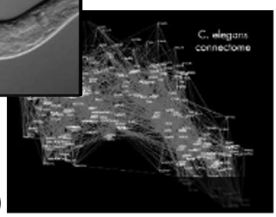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살피는 것(觀我生)이 바로 나를 살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왜 결과는 내가 뜻하고 행한 대로 되지 않았는가"라고 탓한다면 그는 주변을 보지 않으면서 주변과 소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있는 백성의 삶이 곧 내 말과 뜻이 그들에게 '전해져'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보는 것, 그것이 '관아생이 관민(觀民)'의 뜻인 것입니다.

MIT의 신경과학자인 세바스찬 승(Sebastian Seung)에 의하면 1970~80년대에 신경과학자들이 작은 선충벌레(그림1 참조)의 뉴런들 사이에 있는 7,000개의 모든 연결을 지도화 했다고 합니다(그림2 참조). 그것을 커넥텀(connectome)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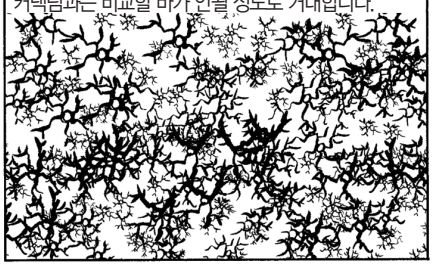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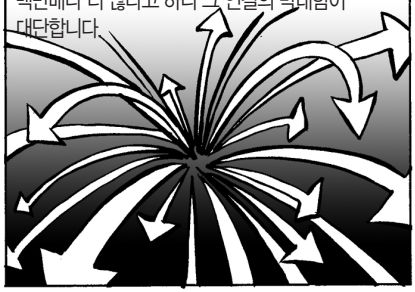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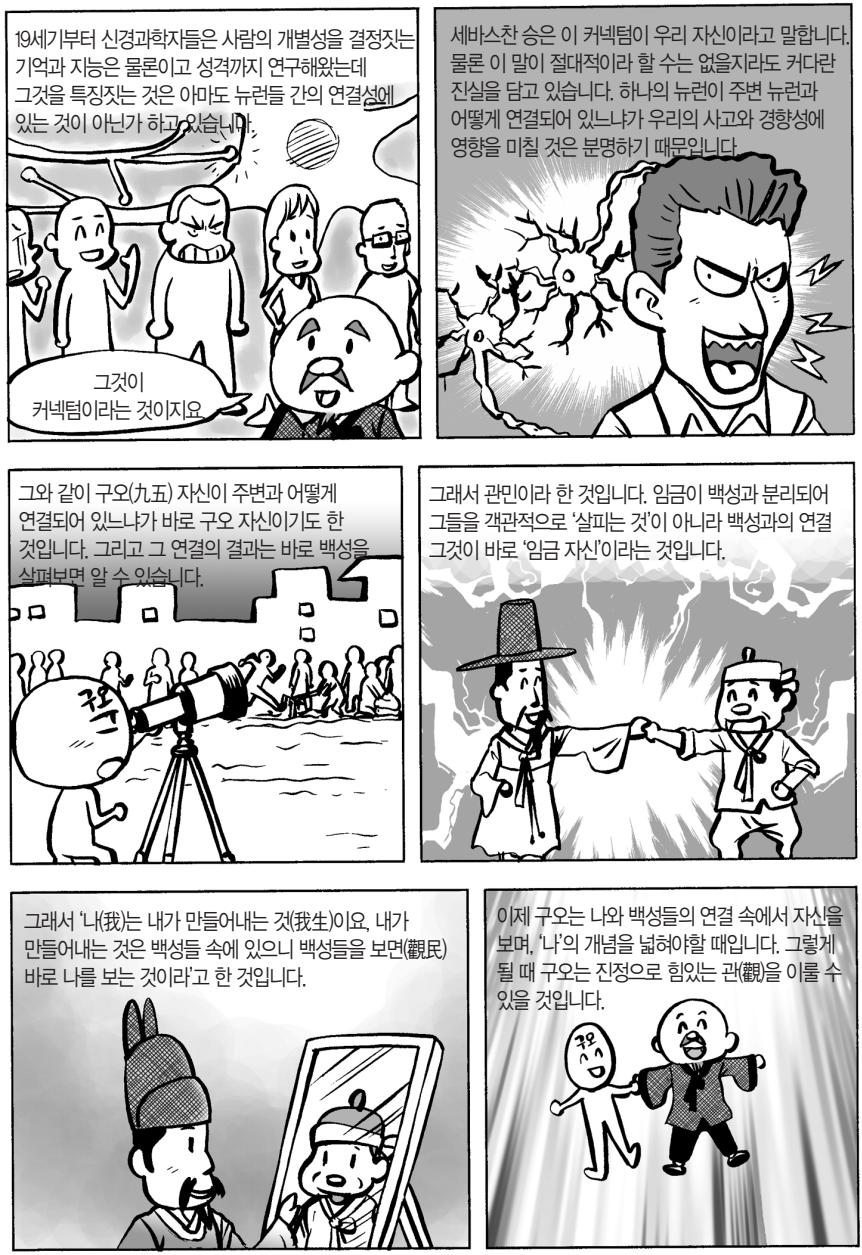
(그림2)

인간에게는 천억개의 뉴런이 있고 만배나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의 커넥텀은 선충의 이 커넥텀과는 비교할 바가 안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한 이 커넥텀은 우리의 게놈이 가진 정보보다 백만배나 더 많다고 하니 그 연결의 막대함이 대단합니다.




19세기부터 신경과학자들은 사람의 개별성을 결정짓는 기억과 지능은 물론이고 성격까지 연구해왔는데 그것을 특징짓는 것은 아마도 뉴런들 간의 연결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넥텀이라는 것이지요.
세바스찬 승은 이 커넥텀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커다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이 주변 뉴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사고와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구오(九五) 자신이 주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바로 구오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결과는 바로 백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민이라 한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과 분리되어 그들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의 연결 그것이 바로 '임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我)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我生)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백성들 속에 있으니 백성들을 보면(觀民) 바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구오는 나와 백성들의 연결 속에서 자신을 보며, '나'의 개념을 넓혀야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구오는 진정으로 힘있는 관(觀)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